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십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 의식 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십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의 우리 법 제도에서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차별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堡壘)*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底力)*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胎動)*할 것이다.

* 보루: 지켜야 할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저력: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

* 태동: 어떤 일이 생기려는 기운이 싹틈.

출처: 이상형 외, 『고등학교 국어』

[나]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함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앞서려 관찰해 보건대 우리 해동(海東)*은 삼한(三韓)이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예악(禮樂)*이 먼저 발전하였고, 나라 풍속이 검소하여 사치를 몰랐습니다.

……(중략)……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께서는 덕은 삼왕(三王)*보다 뛰어나시고 도는 이제(二帝)*와 비등

하시며, 그 공은 유한(劉漢)*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으니, 모든 나라가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이 뒤에 누구를 기다려 바르게 하겠습니까.

……(중략)……

간절히 설명하옵건대 지금 과거의 환법(圓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고, 혹 결단코 행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대략 진술하옵니다.

무릇 쌀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을 따라 교역할 때에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의 사용은 수량(銖兩)*의 가벼운 것이지만 헛되이 소모하는 쪽은 천균(千均)*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곧 수백 리 밖에서 쌀을 운반할 때에 말 한 마리에 겨우 두 섬밖에 실을 수 없을뿐더러 열흘이란 기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사람과 말의 힘이 이미 절반 이상 소모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가난한 백성들이 소나 말이 없으면 직접 등에 지고 가다가 추위와 더위에 병들어 길에 쓰러지는데 그 고통과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돈을 사용하여 사람이 지거나 말에 실는 고통을 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째 이점입니다.

……(중략)……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공포(貢布)*가 몇 번 습기에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리면 백에 열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백 무더기가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돈을 사용한다면 저장하는 데도 견고하여 특별히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이 그 넷째 이점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영명하신 지혜로 혼자 결단하시어 과감히 실행하시면 그것은 특별히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 혹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또 신의 건의를 조정의 공론에 부치어 공경대부(公卿大夫)*들에게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간절히 저 마원(馬援)*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열세 가지 문제를 풀어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만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 * 해동: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 * 예악: 예법과 음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삼왕: 중국 고대의 세 임금.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이른다.
- * 이제: 중국 고대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을 이르는 말.
- * 유한: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劉邦)이 건국한 전한(前漢).
- * 환법: 화폐 제도.
- * 수량: ① 얼마 안 나가는 무게. ② 근소하거나 경미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천균: 매우 무거운 무게 또는 그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균'은 예전에 쓰던 무게의 단위로, 1균은 30근이다.
- * 공포: 공노비가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 공경대부: 삼공과 구경, 대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있던 것으로 나중에는 '벼슬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 마원: 중국 후한 때의 무장·정치가(기원전 14년~기원후 49년). 후한 초기에 화폐 '오수전'의 사용을 건의하였는데, 삼부에서 열세 가지 어려움을 들어 이를 반대하자 광무제 앞에서 직접 해명하였고, 임금은 이에 따라 화폐법을 시행하였다.

출처: 고흥진 외, 『고등학교 독서』

[다]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쫓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럴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쳐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 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不調)*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럴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 갔다. 활판(活版)* 윤전기(輪轉機)*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摺紙)*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offset)* 윤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 부조: 건강의 상태가 고르지 못함.

* 활판: 네모기둥 모양의 금속 윗면에 문자나 기호를 볼록 튀어나오게 새긴 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용 판.

* 윤전기: 신문, 잡지 따위와 같이 많은 양을 인쇄할 때 쓰는 인쇄기의 하나.

* 접지: 제본할 때 페이지 순서대로 인쇄된 종이를 접음.

* 오프셋: 평평한 인쇄판으로 하는 평판 인쇄의 하나.

출처: 이송원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가]의 현상을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특정 가수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시가 대신 노래를 불러 주는, 이른바 AI 커버(따라 부르기) 영상이 유행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막대한 돈과 시간이 투입됐던 기술이 이제 2~3분 만에 한 곡을 완성하니, 흥미 유발 요소에 제작의 용이성까지 더해져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다. 의외성이 클수록 대중의 감응도 뜨겁다. 머큐리, 임재범뿐만 아니라 음원 차트를 석권 중인 비비의 ‘밤양갱’은 고(故) 김광석, 아이유, 박명수, 오혁, 그리고 만화 캐릭터 보노보노까지 불렀다.

……(중략)……

아이유 시의 커버곡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밤양갱’ 인기를 견인한 1등 공신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망상’도 드는 것이다.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 부르는 민중가요, 김정음이 부르는 애국가 같은 걸 듣게 된다면….(이미 누군가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시가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 두렵지만 막연했던 그 말이 이토록 명확하고 가깝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던가. AI 커버의 확산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시가 소설을 쓰는 거 대하고 단편적인 이벤트와 다르다. 동시다발적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 훨씬 크고 충격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출처: 『문화일보』, 2024. 3. 13.

[나] 대중 매체는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렸지만 대중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즐기는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특정 사회나 계층을 넘어 대중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중략)……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대중문화의 보급과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행의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한편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과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문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소비되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대중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문화 보급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출처: 김영순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

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 작업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쏘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는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 감식안: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

* 미감: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또는 아름다운 느낌.

출처: 민현식 외, 『고등학교 국어』

[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을 흉내내는 ‘성대모사’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누구나 모방하는 기쁨을 느낀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기 있는 인물을 흉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창작과 모방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R.W.에머슨은 “모방은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방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흉내냄의 꼴볼건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국의 절세미인 서시(西施)에 대한 이야기도 이를 반영한다. 베낀 사람을 ‘슬갑도적(膝甲盜賊)*’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남의 작품을 베끼거나 자기 것처럼 발표하는 ‘표절’은 범죄로 간주되며, 교육부 감사에서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적발되거나 연구원의 보고서 표절 사례 등이 이에 대한 경고를 보여 준다.

이처럼 모방과 표절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표절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진다.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모방은 웃음을 주기 위한 오락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모방이 아닌 독창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 슬갑도적: 남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훔쳐다가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출처: 『경향신문』, 2000. 8. 28.(출제진 재구성)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문제를 설명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와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상품을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 정보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 (중략) ……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래의 양 당사자 중 판매자만 품질을 알고 있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하는데,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의 품질에 비례하여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양질의 중고차는 판매되지 않고 낮은 품질의 중고차만 판매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 (중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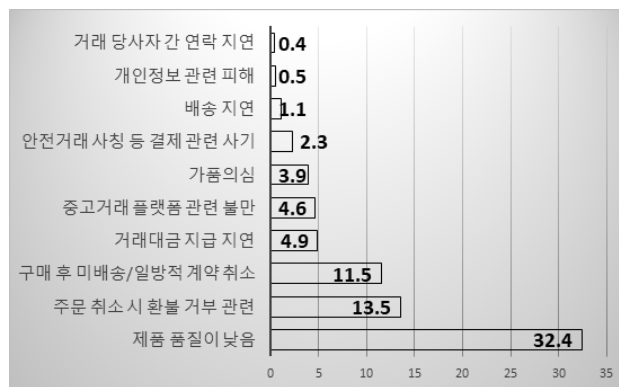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민영 건강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에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보험 가입 후에는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출처: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나]

<중고거래 시 이용자 피해 유형>

(단위: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출제진 재구성)

<중고차 피해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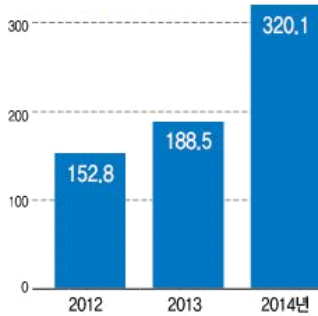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상이	성능·상태 불량	572	72.1
	주행 거리 상이	25	3.2
	침수 차량	24	3.0
	기타	11	1.4
소계		632	79.7
세금 등 기타 비용 미정산		34	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	2.1
기타		110	13.9
합계		893	100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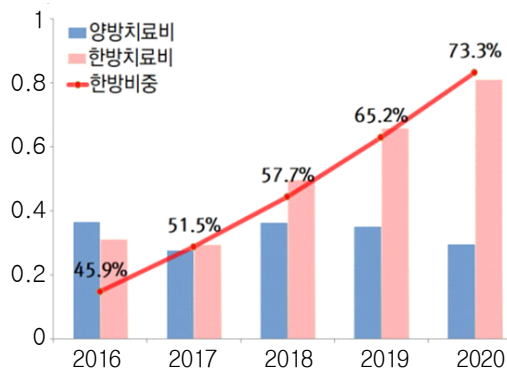
[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환자 적발 금액 통계> (단위: 억 원)



출처: 『연합뉴스』, 2015. 2. 23.

<경상환자* 치료비 및 한방* 치료비 비중> (단위: 조 원, %)



정부는 또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 병실 입원료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경상환자 치료비 가운데 한방의 비중은 2016년 4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3.3%로 수직 상승했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도 2016년 1조 9,302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092억 원으로 50% 급증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 5년간 경상환자와 한방 치료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 급증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 * 경상환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의미함.
- * 한방: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 * 양방: 해부학에 근거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 * 진료수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책정된 가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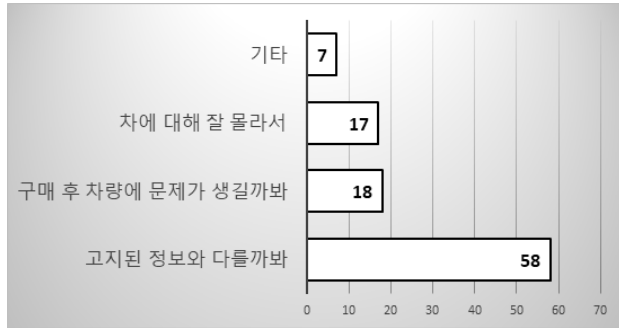
출처: 『한국경제』, 2021. 9. 30.

[라]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가계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은 수입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나 필요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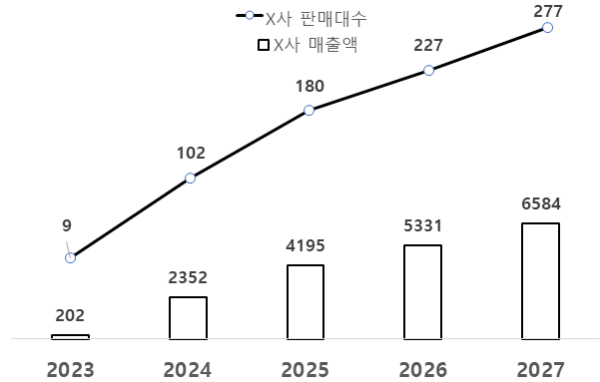
출처: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 우려 사항> (단위: %)



출처: 『헤럴드경제』, 2022. 4. 6.(출제진 재구성)

<국내 브랜드 인증중고차* 사업 전망> (단위: 천 대/십억 원)



* 인증중고차: 정해진 인증 절차를 통해 연식과 주행 거리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능 점검과 수리를 통해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판매하는 중고차를 의미함.

출처: 『뉴스웨이』, 2023. 10. 17.(출제진 재구성)

[마]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므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편익과 비용이 변화하면 선택도 달라진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다.

……(중략)……

시장 경제에서 모든 경제 주체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즉 경제적 유인은 경제 주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주요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사	상품	혜택
□□생명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걷기 등 목표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10,000포인트 달성 시 보험료 10% 할인
○○생명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평균 10,000보 이상 걸은 경우 월 보험료 50% 환급
☆☆화재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걷기, 달리기 등 목표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제휴 쇼핑몰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기프트콘 구매 가능
△△보험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당, 걷기 등 건강 미션 달성 시 포인트 제공 앱을 통해 1포인트당 1원으로 건강관리용품, 식품 등 구매 가능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보험 가입자(보험소비자)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건강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함.

출처: 『중앙일보』, 2018. 6. 8.(출제진 재구성)

<보험회사 혜택 제공 시 생활습관 개선 실천 의지에 대한 보험 가입자 응답률> (단위: %)

구분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하겠다
규칙적 운동하기	20.0	31.5	34.2	14.3
식생활 개선	18.7	30.4	35.6	15.3
금연	33.2	37.2	20.6	9.0
금주 혹은 절주	28.8	35.8	24.3	11.1

출처: 최장훈 외, 2019